

“2024년 무궁화 6A호 발사… 위성플랫폼 기업 도약”

KT SAT, 금산위성센터 50년

위성 종합서비스기업 청사진 발표
내년 사업자 선정, 위성제작 시작
데이터전송 처리량 10배 HTS 적용
기존 위성 대체, 5G 서비스 제공
가변빔 기술로 동남아 적용 고민



KT SAT 금산위성센터에서 KT SAT 송경민 사장이 KT SAT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KT SAT

기술적·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 록문화재로 지정된 직경 27m의 원형안 테나가 지키고 있는 금산위성센터는 1970년 6월 문을 연 이후 올해 개관 50 주년을 맞았다.

최근 우주산업은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 었다. 지난달 미국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첫 민간 유인우주선이 발사돼 국 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하며 민간우 주탐사 시대 개막을 알리는 주인공이 됐다.

KT그룹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 T도 총 5기의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있 는 금산위성센터를 기지국 삼아 올해를 기점으로 뉴스페이스 시대 위성 산업을 이끄는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송경민 KT SAT 대표는 “50년 간 위성 발사하고 관제하고 운용하고, 지상국 혁신을 이뤘다”며 “그간 많은 기술 축적했다면 향후 50년은 새 도전과 혁신으로 글로벌 위성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날 비전 선포 식에서 KT SAT은 위성 신기술이 집약 된 차기 위성 ‘무궁화위성 6A호’를 이 르면 2024년 동경 116도에 발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KT SAT이 2010년 발사한 무궁화위 성 6호의 예상 수명은 15년으로, 2025년 수명 종료 예정이다. 무궁화위성 6A호 는 무궁화위성 6호의 승계 위성이다. 무 궁화위성 6A호는 기존 위성을 대체하



KT SAT 직원들이 금산위성센터 위성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뉴스

고, 위성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 제 공의 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KT SAT은 데이터 전송 처리량이 기존 대비 10배 이상 많은 ‘대 용량 위성(HTS)’ 기술을 적용할 예정 이다. 이외에도 발사 후에도 커버리지 변경이 가능한 ‘가변빔’ 기술 탑재도 고 려하고 있다. 가변빔 기술을 통해 기존 아라비아반도 커버리지뿐 아니라 동남 아 지역 적용도 고민하고 있다.

이를 통해 5G로 인한 급격한 트래픽 증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상망 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도 위성을 통 해 백홀을 구축해 5G를 쉽게 도입할 수 있다.

KT SAT은 올해 무궁화위성 6A호

의 탑재체와 적용 기술을 확정하고, 내 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완료 한 후 무궁화위성 6A호 위성제작을 시 작할 계획이다.

KT SAT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정밀 GPS 위치보정 시스템(K ASS)’ 사업에 참여 중이다. KASS가 구축되면 현재 30m 수준인 GPS 오차 는 1m 수준으로 줄어들어 항공기 이착 륙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시스템 이 무궁화위성 6A에 적용되면, 이르면 2024년께 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전망 된다.

앞으로 다가오는 초연결시대에는 지 상망 구축이 어려운 해외 지역이나 이 동체에서도 끊임없는 서비스가 적용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상망을 이용해서는 모든 커버리지를 적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KT SAT은 지역 구 분 없는 통신 환경 제공을 위해 위성 5G 연동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KT SAT은 지난해 11월 KT 융합기 술원과 함께 세계 최초 5G 상용망과 위 성 통신망 연동 기술에 성공했다. 지난 15일에는 KT 융합기술원과 위성 환경 기반의 테스트베드를 KT SAT 금산위 성센터에 구축했다.

KT SAT은 하반기부터 금산위성센 터 테스트베드에서 ‘한-EU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위성 과 5G 단말기를 연동하는 과제를 수행 하고, 내년 5월 프랑스 오픈 테니스 행사 에서 위성 5G를 통한 영상 송출을 시연 할 계획이다.

KT SAT이 연구 중인 위성 5G 연 동 기술이 상용화되면 망의 대역폭이 확대된다. 지상망 구축이 어려운 해외 지역과 차량 등 이동체에서도 위성을 통해 끊임없는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해진다.

KT SAT은 통신 사각지대인 해양· 우주까지 연결 가능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계 획이다.

/금산(충남)=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개성 가는 길 ‘뺨간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공식적인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18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가 적막하다. /뉴스

6·17 대책에 대출 막히나?... 은행문의 빗발

오늘부터 부동산 6·17대책 시행
“경기 수원·안양, 대전 등 문의 늘어
진행중인 매매건 마무리 지으려는 것”

“투기과열지구에서 종전 규정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려면 18일까지 은행에 대출 접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조정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지점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6·17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신규 규제 적용을 하루 앞둔 18일 한 시중은행 관계 자는 이렇게 상황을 전했다.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종전 규제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이 바쁘게 움직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경기 수원·안양,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소유 권 이전을 준비 중인 고객들의 담보대출 문의가 많아졌다”며 “오늘 중 대출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고 대출 가능 금

액과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 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9 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15 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LTV 20%, 9억원 이하는 40%로 축소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내려간 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 에 대해 LTV 30%, 9억원 이하 주택에 LTV 50%가 적용된다. DTI 적용 비율 로 50%로 조정된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들은 대출문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거래가 이미 진행 중 이던 매매 건에 한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분석했 다. B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택 대출을 위해서 2~3주 기간이 걸리는데 규제 발표 이후에 매매 결정을 짓고 대출 문의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송도국제도시가 포함 된 인천 연수구를 포함해 경기 수원과 성남 수지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 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다. 조정 대상지역에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 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 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 지 역이다.

은행 쪽에선 이번 대책이 큰 실효성 이 없을 것이라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 중은행 관계자는 “여러 번의 규제 발표 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소문이 돌았지만 막상 발표 이 후에도 큰 감소는 없었다”며 “이번 규제 의 영향이 확실치는 않지만 효과가 크 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제 막 대책이 발표 됐기 때문에 은행 차 원에서도 상황에 맞춰 대응을 준비 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석 수습기자 ysl@

금융위, 장애인 ATM 설치비중 늘린다

음성안내 기능 등 개선키로

금융위원회는 18일 ‘장애인 ATM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전 국의 ATM은 총 11만5563대로 장애인 용 ATM은 10만1146대(87.5%)다. 다 만 장애인용 ATM 중 시각·지체 장애지 원 기능을 모두 갖춘 ATM은 5만4992 대로 전체 ATM의 47.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023년까지 시각·지체 장애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범용 장애인 ATM’ 설치비중 을 100%로 확대한다. 단 현실적으로 공 간이 부족(상가 등)하거나, 군부대와 같이 수요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는 제 외다.

편의점, 지하철 등에서 볼수 있는 V AN사가 설치·운영하는 ATM은 장애

지원기능을 오는 2023년까지 63%수준 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2021년 말까지 장애인이 금융회사 ATM코너를 찾았을때 범용 장애인 ATM이 적어도 1대 이상 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의 범용 장애 인 ATM수가 5만2456개인만큼 이를 분 산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책효 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ATM의 장애인 지 원 기능도 보완한다. 음성볼륨 조절 기능을 개선해 ATM이용시 설명을 스피칼 수 있도록 하고, 음성 볼륨 조절 기능을 마 련한다. 휠체어 이용시 전면으로 접근 하는 것보다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측면 접근형 ATM공급도 늘린다.

/나유리기자 yul115@

韓-獨 소·부·장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

중소·중견기업 독일 현지 진출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히든챔피언 의 나라 독일의 최대 연구기관·기업 집적지에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개 소했다.

지난해 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추

진되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자립 화의 가시적인 성과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8 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NR W(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연방주와함 께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 터’ 온라인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와 독일 NRW연방주정부는 지난해 12월 양국 기업·연구소·대학 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국 기술협력 센터 설치에 합의했고, 올해 상반기 센 터 개소를 목표로 입주기업 모집과 선 정, 현지 센터장 선발, 입주기업 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센터가 위치한 NRW연방주 아헨특 구는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인프라 를 보유한 독일 최대 연구기관·기업 집 적지다. /한용수 기자 hys@